

장애아동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 성향과 양육행동*

A Study of Maternal Attributions and Parenting Behavio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장현숙**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조교수 유애란

Dept. of Child Studies, Korea Nazarene University

Associate Prof. : Chang, Hyun-Sook

Dept. of Human Rehabilit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Assistant Prof. : Yoo, Ae-Ra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maternal attribution in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who have a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sing an attributional model, it assessed whether maternal attributions about the child's knowledge, capacity, expectation, and responsibility for behavior problems have effects on maternal behaviors of affect, authoritarian control, and overprotect. The sample consisted of 161 mothers of elementary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maternal attribution about the child's capacity for misbehavior had positive influence on maternal affect and negative influence on authoritarian control behaviors, and that maternal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misbehavior positively influenced maternal authoritarian control and overprotect behaviors. Also, maternal attribution about the child's knowledge for misbehavior had negative influence on maternal overprotect behaviors. In addition, such background factors as number of disability, maternal education, and job of mother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maternal attribution, while maternal self-esteem was a strong significant predictor for mothering behaviors. Th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maternal attributions in parenting.

▲주요어(Key Words) : 귀인(attribution), 장애아동(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문제행동(misbehavior),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1. 서론

지난 1980년대 이후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인지'(parents' cognition)와 관련된 부모의 신념(belief)이나 귀인(attribution) 등에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다. 특히, 부모의 귀인

성향에 관한 연구는 자녀 양육행동의 원인(causes)을 설명할 수 있다는데 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왔는데, 즉 '왜 아동이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부모의 귀인은 부모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Dix, Ruble, Grusec, & Nixon, 1986; Dix, Ruble, & Zambarano, 1989; Gretarsson & Gelfand, 1988; Himmelstein, Graham, & Weiner, 1991; Katsurada & Sugawara, 2000; Larrance & Twentyman, 1983; Smith & O'Leary, 1995).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부모-자녀관계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으로서 구순주와 최보가(1996)는 초등학교 아동의 비사회적 행

* 본 연구는 2003학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장현숙 (E-mail : hyunsook@kornu.ac.kr)

동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을, 이은희(1996)는 유치원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과 행동반응을, 그리고 박경란과 장현숙(1999)은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을 귀인론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일반 아동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면서 아동의 행동이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지속적인지의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아동 및 부모의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귀인성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발달적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귀인성향이나 행동반응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드문 실정으로, 장애아동의 행동문제나 부모역할행동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Chavira, Lopez, Blacher, & Shapiro, 2000; Jenson, Green, Singh, Best, & Ellis, 1998).

귀인론(Attribution Theory)에 따르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행동은 그 상황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추론(inferences)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Dix & Grusec, 1985, pp. 201-202). 이는 부모의 행동반응이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 원인이나 동기, 또는 아동의 속성에 대한 부모의 인지 및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문제행동이 아동의 통제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또는 의도성이 있는가 하는 부모의 귀인은 그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나 반응을 결정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귀인성향은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어떻게(how) 인지하고 판단하는가, 왜(why) 부모의 양육행동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행해지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가 하는 부모의 귀인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Miller, 1995).

현재까지 조사된 부모의 귀인성향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귀인성향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적인 양상을 보인다(Dix 등, 1986; 1989)고 한다. 이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능력과 동기를 중시하게 되고 아동에 대한 더욱 큰 기대와 책임성이 부과되기 때문으로, 부모는 나이가 많은 아동이 어린 아동에 비해 적절하게 행동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지녔다고 기대하며, 따라서 문제행동에 대해 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Himelstein 등, 1991). 또한 아동의 성별은 부모의 귀인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Gretarsson과 Gelfand(1988)의 연구에서 남아보다 여아의 행동을 보다 내적 요인으로 귀인하고 있을 뿐, 하영희와 박혜원(1996)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귀인성향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제시하였다. 아동의 장애의 심각성 또한 어머니의 귀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발달장애아동이 지닌 장애의 심각성이 크면 클수록 부모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책임성을 부과하지 않는 것 같다(Chavira 등, 2000).

특히 부모의 귀인성향은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긍정

적인 관계가 있는데, 대체로 자아존중감이 높은(낮은) 사람일수록 긍정적(부정적) 결과에 대해 내적(internal)이고 지속적(stable)이며 총체적(global)인 귀인을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심희옥, 1996). 아동학대 부모를 조사한 Larrance와 Twentyman의 연구(1983)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긍정적 행동보다는 부정적 행동에 대해 보다 지속적이며 내적인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기분(mood)이나 감정상태(예: 우울증)도 귀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머니가 화가 났을 경우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Dix & Reinhold, 1991), 우울성향이 있는 어머니는 자신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Dix, 1991)고 한다. 이밖에, 부모가 지닌 자녀양육 이념(ideologies)도 귀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테면 권위주의적 부모는 아동에게 보다 큰 능력과 책임성을 귀인하기 때문에 더 부정적이고 처벌적인 훈육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Dix 등, 1989).

한편, 부모 역할 행동 및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행동 특성과 아동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지와 관련이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부모의 귀인성향을 결정짓는 아동의 행동 특성과 관련하여, Gretarsson과 Gelfand(1988)는 긍정적인 경우(친사회적 행동)와 부정적인 경우(반사회적 행동)에 부모가 다르게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어머니는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이나 특성을 아동의 속성에 의한 것이며 아동에게 더욱 책임이 있고 보다 지속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인 반면, 부정적인 행동과 특성에 대해서는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즉, 어머니는 낙관주의자(optimists)로, 좋은 경우에 대해서는 나쁜 경우보다 더 내재적이고, 지속적이며,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귀인하는 성향임을 보여준다.

발달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귀인은 정상적인 아동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발달장애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귀인성향을 연구한 Chavira 등(2000)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이 행동적인 결핍(예: 언어표현 부족, 걷지 못함 등)이라기보다는 과잉행동적 형태(예: 성질부리기)로 나타날 때 아동에게 행동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욱 부과하였다. 대체적으로,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일반 부모의 경우보다 아동에 대해 더 부정적인 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ix와 Lochman(1990)에 의하면, 매우 공격적인 남아의 어머니는 비공격적인 남아의 어머니보다 아동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더 부정적인 귀인(보다 의도적이고 기질적임)을 한다고 하였으며, 과잉활동적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Sobol 등(1989)의 연구와,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Himelstein 등(1991)의 연구에서도 문제행동을 지닌 아동의 부모는 보다 부정적인 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행동특성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동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부모

의 행동 반응은 달라진다. 대부분 부모의 귀인 성향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 부적절하다는 문제 행동 (misbehavior)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는데(박경란·장현숙, 1999; 이은희, 1996; Chavira 등, 2000; Dix 등, 1989; Katsurada & Sugawara, 2000), 아동이 문제행동을 하게 될 때 부모는 아동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하는 아동의 행동에 내재한 요구와 동기, 그리고 아동의 한계 등을 추론하여 그에 적절한 부모의 행동반응을 선택하게 된다(Dix 등., 1986). 즉, 특정한 상황에서 아동에게 기대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아동의 동기나 의도, 그리고 그 상황을 아동이 알고 있는가 하는 추론에 기초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문제행동)을 할 경우 부모는 그 행동에 대한 아동의 책임성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반응을 결정한다. Fincham과 Jaspers(1980)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처벌은 아동이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적절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동이 자신의 행동의 부정적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아동의 능력이 부족할 때,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을 경우 부모의 통제나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책임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한 어머니는 낮게 부과한 어머니에 비해 자녀에게 보다 부정적인 감정(분노와 좌절)과 공격적이며 엄격한 행동 반응을 나타내었다(Chavira 등, 2000).

Dix 등(1986, 1989)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행동에 대한 부모의 귀인성향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동의 행동이 행동적 '지식'(knowledge)과 자기통제와 같은 '능력'(ability)의 부족으로 야기되었는가 하는 부모의 인지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의 행동이 상당한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경우 부모는 설명과 유도가 보다 적절한 양육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아동(행동)에 대한 부모의 귀인은 부모역할행동을 적절히 수행해나가는 데 중요하며, 특히 장애아동이 행하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자녀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관계를 이루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정서적, 행동적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가 어떻게 귀인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으로 (Jenson, 등, 1998),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특성 및 행동 유형, 그리고 부모의 특성은 부모의 귀인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부모의 귀인성향은 또한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반응 행동을 설명하는 귀인이론이 장애가 있는 아동과 그 부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Chavira 등, 2000)를 조사해보고자,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에 초점을 두면서, 장애아동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

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아동, 모, 가족의 특성은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장애아동, 모, 가족의 특성은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은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와 충청도에 소재한 특수학교 및 일반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 아동의 어머니 1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낸 <표 1>를 보면, 장애아동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9.2세로서 36-40세가 48.7%로 가장 많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하(58.5%), 전문대졸(22.6%), 대졸이상(18.9%)의 순서이고, 직업을 가진 경우(23.8%) 보다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76.3%) 훨씬 많았다. 장애아동의 연령은 8-14세의 분포(평균 11.0세)로, 남아가 65.2%, 여아가 34.8%를 차지하여 남아의 경우가 여아의 경우보다 2배 가까이 많았으며, 장애형태는 한 가지 장애를 지닌 경우가 50.9%이고, 2가지 이상의 중복장애를 지닌 경우가 49.1%이었다. 한편, 가정의 소득은 조사대상자의 42.0%가 100만원-200만원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상의 경우는 14.6%, 100만원 미만은 13.4%를 차지하였다. 자녀수는 대다수가 2명(71.3%)을 두었고, 3명 이상이 21.3%, 1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7.5%에 달한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가족적 특성

(N=161)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아동 연령	8세	16(9.9)	모의 연령	35세 이하	26(16.5)
	9세	26(16.1)		36-40세	77(48.7)
	10세	24(14.9)		41세 이상	55(34.8)
	11세	23(14.3)	평균(S.D.) 39.2세(4.0)		
	12세	35(21.7)	모의 학력	고졸이하	93(58.5)
	13세	27(16.8)		전문대졸	36(22.6)
	14세	10(6.2)		대졸	23(14.5)
평균(S.D.)	11.0세(1.7)	대학원이상		7(4.4)	
아동 성별	남자	105(65.2)	직업 유무	있다	38(23.8)
	여자	56(34.8)		없다	122(76.3)
장애 형태(수)	1유형	81(50.9)	자녀수	1명	12(7.5)
	2-6유형	78(49.1)		2명	114(71.3)
가정 소득	100만원 미만	21(13.4)		3명	28(17.5)
	100-200만원	66(42.0)		4명	4(2.5)
	200-300만원	47(29.9)		5명	2(1.3)
	300-400만원	12(7.6)		평균(S.D.) 2.2명(0.6)	
	400-500만원	6(3.8)			
500만원이상	5(3.2)				

* 무응답으로 인해 빈도수가 다름.

2. 측정도구

1) 귀인성향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은 Dix 등(1989)의 귀인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된 박경란과 장현숙(1999)의 귀인성향 척도를 장애아동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행동상황으로 구성된 문항들은 각각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있는데, 각 문항은 ① 장애아동이 자신의 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알고 있는가(“전혀 모른다” ~ “절대적으로 안다”)라는 ‘지식’(knowledge) 귀인, ② 장애아동이 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가(“전혀 아니다” ~ “정말 그렇다”)라는 ‘능력’(capacity) 귀인, ③ 장애아동에게 보다 나은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가(“기대할 만한 행동이다” ~ “기대에 전혀 못 미친다”)라는 ‘기대’(expectation) 귀인, 그리고 ④ 장애아동이 꾸지람 듣기 등 책임성여부(“전혀 없다” ~ “절대적으로 있다”)에 대한 ‘책임성’(responsibility) 귀인 등을 묻게 되어 있으며, 8가지의 문제행동상황에 대한 네 형태의 질문내용에 각기 응답하도록 제시되었다. 귀인성향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1(지식 귀인: .90; 능력 귀인: .87; 기대 귀인: .89; 책임성 귀인: .84)이었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Rosenberg(1986)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이는 자기 가치, 자질, 실패감, 능력, 자존심, 긍정적 태도, 만족성, 자기 존중, 무력감, 융용성 등을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로 측정되어, 높은 점수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1이었다.

3)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문항은 총 27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장애아동의 양육상황과 관련되는 애정적 양육행동(9개 문항), 통제적 양육행동(9개 문항), 그리고 과보호적 양육행동(9개 문항) 등 3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애정적 양육행동에는 아동에 대한 언어적·비언어적 친밀감, 아동중심적 또는 아동존중·수용 태도와 아동요구에의 민감성 등이 포함되며, 통제적 양육행동에는 아동의 충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간섭을 하는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과보호적 양육행동에는 아동의 의존성을 보상해주는 행동으로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태도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늘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형태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그리고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각각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애정적 양육행동이 .84, 통제적 양육행동이 .75, 그리고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65이다.

이상, 장애아동 어머니의 귀인성향, 자존감, 양육행동의 점수 범위, 평균 및 신뢰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모의 자존감·귀인성향·양육행동의 평균 및 신뢰도

변인	점수범위	평균 (S.D.)	신뢰도(α)	
자존감	10-40	25.98 (3.87)	.81	
귀인성향	귀인(지식)	8-40	28.02 (6.97)	.90
	귀인(능력)	8-40	31.86 (4.94)	.87
	귀인(기대)	8-40	26.10 (7.31)	.89
	귀인(책임성)	8-40	30.91 (4.94)	.84
	전체	32-160	116.89(16.71)	.91
양육행동	애정적	9-45	32.97 (5.30)	.84
	통제적	9-45	24.66 (4.92)	.75
	과보호적	9-45	27.02 (5.47)	.65

3.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2003년 6월 23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경기도와 충청도에 소재한 특수학교 6곳과 초등학교 특수학급 20곳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연구자들이 문헌 및 인터뷰 자료를 통해 일차적으로 준비한 설문지를 5명의 장애아동 어머니를 통하여 심층적인 면접을 겸한 예비조사를 실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특수교사를 통하여 각 가정에 배부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배부한 설문지 250부 가운데 16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실실하게 기재되었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한 총 161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 2를 위한 회귀분석에 있어서는 배경변인 중 비연속변인인 아동 성별과 모의 직업유무는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으며, 다른 변인들은 연속변수로 조사하고 코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¹⁾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로 산출하였다.

1) <표 1>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에서는 편의상 배경변인들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형태(수), 모 연령 등을 범주화하여 조사하지 않았으며, 가정소득의 경우는 숫자가 커짐에 따라 소득이 많아지므로 연속변수로 할 수 있고 또한 양적으로 범주화된 자료에 평균값을 취하여 회귀분석할 수 있다.

III. 결과 및 해석

1. 장애아동·모·가족의 특성과 어머니의 귀인성향

장애아동·모·가족의 특성이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동시 회귀 분석한 결과(<표 3> 참조), 아동의 특성 중 장애 유형의 수가 어머니의 지식(knowledge) 귀인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beta=-.192,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특성 중에는 모의 교육수준이 지식 귀인에 부정적인 영향($\beta=-.191, p<.05$)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중복장애를 가질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장애아동이 문제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능력(capacity) 귀인에 의미 있는 영향($\beta=.179, p<.05$)을 나타내고 있어, 직업을 가진 장애아동의 어머니일수록 아동이 문제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 장애아동 어머니의 귀인성향에 관한 회귀분석 (N=161)

독립 변수	귀인(지식)	귀인(능력)	귀인(기대)	귀인(책임성)
	Beta	Beta	Beta	Beta
아동 연령	.061	-.081	.001	-.054
아동 성별	-.025	-.037	-.028	.069
장애유형(수)	-.192*	-.146	-.069	.014
소득 수준	-.122	.008	.009	-.004
자녀 수	.131	.145	.115	-.077
모 연령	.111	.100	.003	-.002
모 학력	-.191*	-.086	-.029	-.015
모직업유무	.126	.179*	.081	-.029
모자존감	.074	.132	-.011	-.111
R ²	.192	.115	.023	.032

주1) 아동성별 (남아=0, 여아=1) 및 모직업유무(있다=1, 없다=0)는 dummy 변수화 하였음.
*p <.05

2. 장애아동·모·가족의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표 4>는 장애아동·모·가족의 특성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동시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인 가운데 모의 자존감 변인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애정적($\beta=.322, p<.001$), 통제적($\beta=-.402, p<.001$), 그리고 과보호적($\beta=-.235, p<.01$) 양육행동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장애아동에게 보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장애아동에게 더욱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취하는 경향이었고, 또한 지나치게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며 만족하는 어머니일수록 장애아동에게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자신을 무능하고 쓸모없는 실패자로 생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장애아동에 대해 통제적이거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의 자존감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4>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회귀분석 (N=161)

독립 변수	애정적	통제적	과보호적
	Beta	Beta	Beta
아동 연령	-.052	-.027	.026
아동 성별	-.047	.040	-.044
장애 유형(수)	-.026	.080	.118
소득 수준	.176	.075	.123
자녀 수	-.031	.050	-.040
모 연령	.137	-.140	-.076
모 학력	.018	.013	.001
모 직업유무	.088	.012	-.115
모 자 존 감	.322***	-.402***	-.235**
R ²	.202	.201	.121

*p <.05 **p <.01 ***p <.001

3. 장애아동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자녀양육행동

장애아동 어머니의 지식, 능력, 기대, 및 책임성 귀인 성향이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적, 그리고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능력에 대한 귀인성향($\beta=.339, p<.01$)이 가장 영향력 있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애아동이 자신의 행동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귀인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양육행동에 있어서 애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경우는 능력 귀인($\beta=-.270, p<.05$)과 책임성 귀인($\beta=.320, p<.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동의 문제행동상황에서 장애아동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귀인하는 어머니일수록 덜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보다 큰 책임을 귀인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 양육행동에 있어서 더 통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가지 귀인 변수 중 장애아동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책임성 귀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이 자신의 행동(문제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알고 있는가 하는 지식 귀인($\beta = -.285, p < .001$)과 책임성 귀인($\beta = .321, p < .01$)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동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다고 귀인하는 어머니일수록 덜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또한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책임을 귀인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양육행동에 있어서 과보호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네 가지 귀인 변수 중 책임성 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아동에게 보다 나은 행동을 기대하는 기대 귀인은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장애아동 어머니의 귀인성향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N=161)

독립변수	애정적 Beta	통제적 Beta	과보호적 Beta
귀인(지식)	-.138	-.033	-.285***
귀인(능력)	.339**	-.270*	-.175
귀인(기대)	-.124	-.021	.028
귀인(책임성)	-.081	.320**	.321**
R ²	.073	.056	.135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귀인성향에 초점을 두고 장애아동·모·가족의 특성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자녀양육행동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시도되었다. 최근 들어 이루어진 부모의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것인 반면, 발달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장애아동·모·가족의 특성이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장애유형의 수, 그리고 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유무 등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귀인성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특성 중 장애유형의 수는 문제행동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장애아동이 알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어머니의 지식(knowledge) 귀인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장애유형이 한가지인 경우보다는 중복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어머니는 아동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다고 귀인하는 성향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발달장애가 심할수록 중복장애(언어장애, 행동장애, 정서장애 등)를 보이므로(Heward, 1996), 발달장애아동이 지닌 장애의 정도가 어머니의 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Chavira 등(200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장애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중복장애일수록) 어머니는 장애아동이 자신의 문제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였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식 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장애아동의 발달상태 및 아동양육행동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지니고 있어(여광응 외, 2003; 정재권·최경숙, 2001), 장애아동이 보이는 부적절한 문제행동은 당연한 것이며 아동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 행동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문제에 대한 대처 행동 특성을 연구한 정재권과 최경숙(2001)에 따르면,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상황에 대하여 낙관적이고, 사회적 지지, 자기 존중 및 심리적 안정 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순주와 최보가(199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신념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적 행동은 가정(외부환경)의 영향으로, 그리고 위축행동은 성격(내부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장애아동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장애아동이 문제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이해할 능력(capacity)이 있는지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장애아동의 능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며, 장애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며 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장애아동·모·가족의 특성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이 애정적, 통제적, 그리고 과보호적 자녀양육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긍정적인 평가로서, 자아개념의 정서적 측면을 말하고 있다(Santrock, 1994, 심희옥, 1996, p. 65에서 재인용).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장애아동에게 더욱 애정적이고 덜 통제적이며 과보호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일반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박경관과 장현숙(1999)의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보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어 애정적이면서 덜 통제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

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또한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개인적·심리적 특성이 중요하다(Goodnow & Collins, 1996)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체로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유능하고 자녀에 대해 수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갖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부모는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며 냉담하게 대하는 성향이 있다(박경관·장현숙, 1999, p. 153 재인용). 이와 같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난 것은 장애아동 양육시 어머니 자신의 유능감, 자신감, 만족감 등의 심리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다. 대체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들은 자신이 쓸모없고 무능하며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게 되어, 이러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표출될 수 있다. 한영옥·김문혜(2003)는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이 아동 행동문제와 가장 크게 관련된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고, 이는 곧 아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 왜곡되고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초래함으로써 아동행동문제를 일으킬 충분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셋째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귀인성향이 자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장애아동이 자신의 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능력(capacity)에 귀인성향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보다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통제적인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잘 파악하고 있고 아동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부모(Larrance & Twentyman, 1983)라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이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이 있다고 귀인하는 어머니의 경우 보다 통제적이고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아동에게 행동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양육 상황에서 더욱 통제적이 될 수 있으며, 아동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꾸지람을 듣거나 야단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지시를 하거나 지나치게 염려를 하고 아동이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과보호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밖에, 장애아동이 자신의 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알고 있으리라는 지식(knowledge)에 귀인하는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어 그다지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장애아동에게 보다 나은 행동을 기대한다는 어머니의 기대(expectation) 귀인성향은 자녀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박경관과 장현숙(1999)의 연구에서 비장애아동의 어머니

의 경우 아동에게 보다 나은 행동을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양육행동에 있어서 비통제적인 양상을 나타낸 모습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즉, 장애아동의 어머니의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보다 나은 행동을 기대하거나 이러한 기대가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해보면, 본 연구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살펴보고,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통하여 부모의 귀인성향이 자녀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증거를 부분적으로 제시하였다. 장애아동이 보다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함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귀인하는 어머니일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내었으며,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덜 나타내었다. 또한 장애아동이 문제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고 꾸지람을 들을 만하다고 귀인하는 어머니일수록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아동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귀인하는 어머니일수록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적었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부모일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는 부모의 인지적 측면이 보다 적절한 부모역할행동을 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 가정을 중심으로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을 살펴보고 장애아 부모의 부모역할행동(parenting)을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장애아 부모의 부모역할행동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장애아 가정의 부모역할행동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부족으로 본 연구를 위한 장애아동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에 대한 조사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척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비록 심층적인 예비조사를 통하여 장애아동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장애아 가정의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척도가 구성되어 사용함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부모의 귀인성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해 봄이 필요하다. 귀인 연구가 대부분 그렇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장애아동의 문제행동 상황은 조사대상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의 아동이 질문에 묘사된 형태로 행동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가 실제로 본 자녀의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장애아동이 행하는 실제적인 행동에 초점을 둔 부모의 귀인성향 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아동의 장애유형(정신지체,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에 따른 특징이나 가족형태(예: 한부모 가

족)에 따른 장애아동 어머니의 귀인성향을 살펴봄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의 정도를 장애유형의 수(중복장애의 여부)로 살펴보았으나, 장애의 심각성 정도(경증, 중증)에 따라서도 부모의 귀인성향이나 양육행동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한 어머니의 귀인성향을 살펴보았으나, 이외에도 아동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귀인을 조사하고, 아울러 장애아동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 특히 형제자매의 관계나 아버지의 역할을 규명해 보는 등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요청되는 바이다.

□ 접수일 : 2003년 11월 07일

□ 심사일 : 200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1월 30일

【참 고 문 헌】

- 구순주·최보가(1996).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 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107-120.
- 박경란·장현숙(1999).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3)**, 143-156.
-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심희옥(1996). 대학생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주는 귀인양식과 매개요인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원. *대한가정학회지*, **34(4)**, 63-74.
- 여광웅·박대용·이점조·추연구 공저(2003). *특수아동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 이은희(1996).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과 행동반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2)**, 31-42.
- 장현숙(1999). 부모의 자녀행동에 대한 귀인분석. *지성과 창조*, **제2권**, 345-362.
- 정재권·최경숙(2001).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문제에 대한 대처 행동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3)**, 41-64.
- 하영희·박혜원(1996). 귀인 경향에 따른 도덕성(도덕신념, 판단, 행동) 발달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3)**, 271-282.
- 한영옥·김문혜(2003).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횡문화적 고찰. *아동학회지*, **24(1)**, 47-59.
- Chavira, V., Lopez, S. R., Blacher, J. & Shapiro, J.(2000). Latina mothers' attributions, emotions, and reactions to the problem behaviors of thei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41(2)**, 245-252.
- Dix, T. H.(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3-25.
- Dix, T. H. & Grusec, J. E.(1985). Parent attribution process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201-233), Hillsdale, NJ: Erlbaum.
- Dix, T. H. & Lochman, J. E.(1990). Social cognition and negative reactions to children: A comparison of mothers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418-438.
- Dix, T. H. & Reinhold, D. P.(1991). Chronic and temporary influences on mothers' attributions for children's disobedience. *Merrill-Palmer Quarterly*, **37**, 251-271.
- Dix, T. H., Ruble, D. N., Grusec, J. E. & Nixon, S.(1986). Social cognition in parents: Inferential and affective reactions to children of three age levels. *Child Development*, **57**, 879-894.
- Dix, T. H., Ruble, D. N. & Zambarano, R. J.(1989).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the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ment*, **60**, 1373-1391.
- Fincham, F. D. & Jaspers, J. M.(1980).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rom man the scientist to man as lawye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3 (pp. 81-138). New York: Academic Press.
- Goodnow, J. J. & Collins, W.(1996). *Development according to parents: The natur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parents' ideas*. Lawrence Erlbaum.
- Gretarsson, S. J. & Gelfand, D. M.(1988). Mothers' attribu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64-269.
- Heward, W.(1996). *Exceptional children: A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5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 Himmelstein, S., Graham, S. & Weiner, B.(1991).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maternal beliefs about the importance of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2**, 01-310.
- Jenson, C. E., Green, R. G., Singh, N. N., Best, A. M. & Ellis, C. R.(1998). Parental attributions of the causes of their children's behavio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7(2)**, 205-215.
- Katsurada, E. & Sugawara, A. I.(2000).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attribution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 affect and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1), 39-50.
- Larrance, D. T. & Twentyman, C. T.(1983). Maternal attributions and child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449-457.
- Miller, S. A.(1995). Parents' attributions for their children's behavior. *Child Development*, 66, 1557-1584.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Smith, A. M. & O'Leary, S. G.(1995). Attributions and arousal as predictors of maternal discipline. *Cognitive Theory and Research*, 19(4), 459-471.
- Sobol, M. P., Ashbourne, D. T., Earn, B. M. & Cunningham, C. E.(1989). Parents' attributions for achieving compliance from attention-deficit-disorder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 359-369.